

미시1팀 (영어발표)	팀장	서원진
제목	Selling Subscriptions (AER, 2025)	
저자	Liran Einav, Ben Klopach, Neale Mahoney	
분야	Industrial Organization, Behavioral Economics, Structural Model	
소개	<p>여러분은 필요 없어진 구독서비스를 바로바로 해지하시나요?</p> <p>최근, 많은 서비스와 소프트웨어는 구독 형태의 결제시스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일컬어 <b>Subscription economy</b>라고도 합니다. 본 논문은 <b>subscription economy</b>의 급격한 성장 배경 중 하나로 <b>consumer inertia</b>에 주목합니다. 소비자들은 구독 서비스를 제때 해지하지 못하며, 이는 기업의 유의미한 수익원이 된다는 것입니다.</p> <p>그러나 이러한 소비자의 행태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소비자가 관성적으로 결제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서비스를 여전히 이용 중인지 데이터만으로 구분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p> <p>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아주 기발한 접근 방식을 제안합니다. 바로 우리가 '카드를 교체하는 시점'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카드가 바뀌면 결제 정보도 새로 입력해야 하기에, 소비자들은 강제로 '구독을 유지할지 말지'를 고민해야 하는 <b>Active Choice</b>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p> <p>저자들은 미국의 대규모 카드 결제 데이터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밝혀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 관성이 없다면 기업의 구독 수익은 현재의 약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됩니다.</li> <li>● 소비자들은 평균적으로 <b>5~6개월</b>에 한 번만 자신의 구독 상태에 주의를 기울입니다.</li> <li>● 만약 <b>6개월</b>마다 한 번씩 갱신 여부를 묻는 정책을 도입하면, 관성으로 인한 기업의 초과 수익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li> </ul> <p>데이터의 한계를 기발한 실증 전략으로 보완하며 실질적인 정책적 근거를 제시한 연구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p>	

	생각합니다.
--	--------

미시2팀 (영어발표)	팀장	최도현
제목	Climate payments: A Coase theorem (JET, 2025)	
저자	Prajit K. Dutta, Roy Radner	
분야	Micro theory, Environmental Economics	
소개	<p>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학적 방안은 여러 연구에서 모색되어 왔습니다.</p> <p>이 논문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27) 이후 논의되어 온 <b>climate-related payments</b> (온실 가스 감축을 대가로 다른 다른 국가들이 돈을 지불하는 방식)를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검토한 논문입니다.</p> <p>저자들은 다양한 <b>monetary transfer</b> 방식 하에서 어떤 균형이 도출될지 분석한 후, 특정한 <b>monetary transfer</b> 방식 하에서는 이런 <b>climate-related payments</b>를 통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하고 효율적인 균형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입니다.</p> <p>즉, 이런 방식을 채택하면 감축량에 따라 다른 국가들이 돈을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논문의 요지입니다.</p> <p>물론 모형적으로 생략된 부분도 많고, 가정에 따른 현실과의 일부 괴리도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에 도입하려면 보완할 점이 많을 것이지만</p> <p>개인적으로 이론 연구가 갖는 의의 중 하나는 사회 문제 해결의 마중물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라 생각하여, 이런 면에서 좋은 메세지가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p> <p>저자들의 이러한 결론은 <b>Coase theorem</b>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p> <p>환경 문제는 두 개의 국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b>Coase theorem</b>이 성립해야 한다는 보장이 없지만(이 문제는 <b>Ellingsen and Paltseva(2016)</b>를 참고), <b>timing of decisions</b>를 잘 고려하면 마치 코즈의 정리처럼 금전적인 <b>transfer</b>를 통해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p> <p><b>**NOTE</b></p> <p>논문 자체가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니나 저번 학기에 제가 골랐던 논문과는 달리 게임이론을 수강하지 않은 분이라면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p> <p>게임이론을 수강하셨거나 최소 동시 수강하시는 분이 참여해주시면 더 배워가는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p>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해도 제가 친절히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미시3팀 (영어발표)	팀장	전승유
제목	Defensive investments and the demand for air quality: Evidence from the NOx budget program (AER, 2017)	
저자	Olivier Deschênes, Michael Greenstone, Joseph S. Shapiro	
분야	Applied Microeconomics, Environmental Economics	
소개	<p>대기질 개선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p> <p>우리는 미세먼지나 오존이 심한 날, 단순히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는데 그치지 않고 마스크를 쓰고, 공기청정기를 돌리며, 호흡기 약을 구비하기도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방어적 투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의 환경 규제 편익 분석은 주로 사망률 감소나 병원 입원을 저하 같은 직접적인 건강 결과에만 집중해 왔었고, 소비자들이 오염을 피하기 위해 지불하는 숨은 비용 등은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간과되어 왔었습니다. 이 논문은 미국의 ‘질소산화물 예산 프로그램’이라는 거대한 자연 실험을 활용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p> <p>또한 이 논문은 <b>NBP</b>가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점, 특정 주들만 참여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삼중차분법이라는 실증 전략을 사용하고,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구변수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깨끗한 자연의 가치는 얼마인가’, ‘깨끗한 자연을 위해 얼마를 지불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베커-그로스먼 건강 생산 함수를 바탕으로 이론적 모델과 실증 데이터를 연결해냅니다. 그리고 연구의 결과로 환경 규제의 가치를 평가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과소 평가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p> <p>현실의 복잡한 데이터에서 어떻게 인과관계를 찾아낼 수 있는지 궁금하고, 삼중 차분법과 도구변수 등의 계량 기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내고, 환경 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들에 있어서 그 정책의 비용 - 편익 분석을 어떻게 해보고 연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함께 이 논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p>	



거시1팀 (영어발표)	팀장	김명규
제목	Supply Chain Disruptions: Evidence from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QJE, 2021)	
저자	Vasco M Carvalho, Makoto Nirei, Yukiko U Saito, Alireza Tahbaz-Salehi	
분야	JEL: D57 - Input-Output Tables and Analysis E32 - Business Fluctuations; Cycles L14 - Transactional Relationships; Contracts and Reputation; Networks Q54 - Climate; Natural Disasters; Global Warming	
소개	<p>We aim to study a quantitative framework in which local shocks propagate through the production network. In an era marked by supply chain disruptions of the COVID-19 pandemic and escalating geopolitical threats to the liberal world order, I think this paper weighs in on a timely discourse emphasizing the role of supply chain in our economy. More to the point, I hope that this framework serves as a valuable tool for us to better understand and explore the implication of various shocks in the near future.</p>	

계량1팀	팀장	박정준
제목	Logs with Zeros? Some Problems and Solutions (QJE, 2024)	
저자	Jiafeng Chen, Jonathan Roth	
분야	Applied Econometrics	
소개	<p>실증연구에서 데이터가 0값을 포함할 경우 연구자들은 한 가지 대안으로 <math>\log(1+x)</math>나 <math>\arcsin(x)</math> 등의 변환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 논문은 해당 방법들이 '단위의존성'이라는 결함을 가지고 있어 퍼센트 효과로 해석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을 밝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실증연구에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하였습니다.</p> <p>단위 의존성: 연구 결과, 처치가 0에서 0이 아닌 값으로 변하는 'extensive margin'에 영향을 줄 경우, 결과 변수의 단위(예: 달러를 센트로 변경)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처치 효과의 크기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퍼센트 효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p> <p>불가능의 트릴레마 (The Trilemma): 변수가 0을 포함할 때, 다음 세 가지 속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처치 효과 파라미터는 존재할 수 없음을 이론적으로 입증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별 수준 처치 효과의 평균일 것.</li> <li>2. 단위 변화에 불변할 것(Scale invariant).</li> <li>3. 추정 가능할 것(Point identified).</li> </ol> <p>연구목적에 따른 해결책 제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b>Poisson</b> 회귀분석: 평균적인 퍼센트 변화를 보고 싶을 때 권장됩니다.</li> <li>2. <b>Intensive/Extensive Margins</b>의 명시적 가중치 설정: 연구자의 가치 판단을 반영한 변환을 사용합니다.</li> <li>3. <b>Lee Bounds</b> 활용: Intensive/Extensive Margins(원래 0이 아니었던 집단)의 효과를 분리하여 추정합니다.</li> </ol> <p>앞으로 실증연구를 한 번이라도 하게 되신다면 마주하게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PPML 등 부분적인 해결책들이 제시되었지만, 본 연구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방법들이 올바르게 해석될 수 없음을 이론적으로 밝히고 이를 정리하여 목적에 맞는 해결책들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p>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논문을 읽고 함께 발표함으로써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이 정리를 끝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

계량2팀	팀장	이다현
제목	What's trending in difference-in-differences? A synthesis of the recent econometrics literature (JE, 2023)	
저자	Jonathan Roth, Pedro H.C. Sant'Anna, Alyssa Bilinski, John Poe	
분야	Econometrics, Difference-in-differences (DiD), Causal Inferences, Staggered Treatment timing	

<p>소개</p>	<p>이 논문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하게 발전한 이중차분법(DiD) 계량경제학 이론들을 집대성한 리뷰 논문입니다.</p> <p>- 문제의식</p> <p>과거에는 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때 여러 시점에 걸쳐 정책이 도입되는 상황에서도 전통적인 고정효과 모델인 이른바 TWFE를 관행적으로 사용해 왔으나, 최근 연구(Bacon 2021)들은 이 방식이 특정 조건에서 심각한 편향을 초래할 수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후 Callaway and Sant'Anna (2021)은 이와 같은 편향을 해결하는 방식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여러 시점에 거친 DiD를 통한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해결책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Bacon의 지적 이후 수많은 연구자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각각의 해결책들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신흥 연구자에게 혼란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p> <p>- 이 논문의 기여</p> <p>이 논문은 기존 DiD의 비판들의 핵심을 정리하고 연구자들이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제시합니다. 특히 정책 도입 시점이 서로 다른 경우 발생하는 가중치 문제나 평행 추세 가정이 위배될 가능성에 대비한 민감도 분석 기법 등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인과추론을 수행하려는 연구자들에게 기존의 분석 관행에서 벗어나 더 robust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p> <p>- 발표 계획</p> <p>리뷰 논문인 만큼 여러 논문들의 아이디어를 축약하여 제시하기 때문에, 발표자들은 더 자세한 이해를 위해 원 논문들 (Bacon 2021; Sant'Anna 2021)을 읽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DiD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literature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연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p>
-----------	---